

문 2: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 할것을 지시 하셨는가?

답 2: 신, 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 할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적 근거: 갈라디아서 1:8-9; 이사야 8:20; 누가복음 16:29-31, 24:27,44; 요한복음 15:11; 디모데 후서 3:15-17; 베드로후서 3:2, 15-16; 요한일서 1:3-4

질문 1: “경”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질문 2: 성경(聖經)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고 즐거워 할 것을 지시하는 다른 규칙이 있는가?

질문 3: 무엇과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시며 선언하셨는가? (로마서 1:20, 고린도전서 1:21, 히브리서 1:1)

질문 4: 성경은 무엇인가?

질문 5: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것인가?

질문 6: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로마서 15:4)

질문 7: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마태복음 4:4)

질문 8: 성경말씀에는 원본, 사본, 번역본이 있는데 이 세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질문 9: 성경의 원본은 정확무오한가?

질문 10: 성경을 전적으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아니면 왜 아닌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질문 11: 우리는 무엇을 구약성경이라고 하는가?

질문 12: 우리는 무엇을 신약성경이라고 하는가?

질문 13: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문 14: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질문 15: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16: 성경은 무엇에 유익하다고 했는가?

질문 17: 성경말씀에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해 성경은 어떤 경고를 했는가? (요한계시록 22:18-20)

설명:

성경은 기독교의 “경”으로 불리운다. “경”이란 권위가 있는 책임을 말해준다. 즉 성경은 기독교의 권위있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 사역, 행정 등의 모든 것은 성경의 권위에 입각하여 이뤄져야만 한다. 경으로 인정된 성경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모양으로 자신의 모습과 뜻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연을 통한 “일반계시”가 있다. 일반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신비함, 웅장함, 섬세함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 능력, 지혜, 솜씨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9-20 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도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른다고 할 수 없음을 말했다. 그러나 일반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일반계시와는 달리 하나님 자신을 알게하며 구원에 이르게하는 “특별계시”가 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성품, 성격, 마음, 생각, 계획, 사역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한다. 구약성경에서 특별계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사사 등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주어졌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 세례요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 졌다. 그리고 오늘까지 내려오는 성경말씀은 특별계시에 속한다. 특별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한다. 즉,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케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고 즐거워 할 것을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고 지시하는 것은 성경뿐이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구원에 동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성경외에 어떤 다른 책이나, 사람이나, 장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배운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의 모습일 것이다.

성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때 우리는 간단하며 분명하고 확고한 답을 제시 할 수 있어야한다. 성경은 한권의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여러권의 책이 모여서 성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그의 원하심을 이뤄가는 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실된 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호흡)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저자들의 솜씨, 은사, 배움, 체험을 모두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오류됨이 없이 기록되게 하셨다.

성경은 약 40 여명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 중에 왕, 귀족, 학자, 부자, 어부, 세리, 의사, 바리새인, 정치가들이 포함되어있다. 또 성경은 약 1,500 - 2,000 이란 긴 세월을 거쳐 서로 만나보지도 못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록되었으며 성경의 주를 이루는 두개의 원어는 헬라어와 히랍어이며 약간의 아람어로 성경은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일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그의 성품, 성격, 마음, 생각, 계획, 사역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원본, 사본, 번역본 이 세가지로 구분된다. 그럼 성경의 원본은 어디있는 것인가? 그렇다 성경의 원본은 그 자취를 이미 감추어져 버렸고 지금은 찾을 수도 없다. 혹 찾는다면 하더라도

그것이 원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성경의 원본도 없는 그런 시시한 종교인가? 그렇지 않다. 원본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그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는가?

만약 어떤 책 한권을 복사한다고 하자. 가령 복사관을 10 개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10 개의 복사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가상하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본래의 원본이 되었던 책마저 사라져 버렸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사본중에 몇부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해 발견되었다고 하자. 만약 하나의 사본만 발견되었다면 원본과 사본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발견된 두 세개의 사본을 함께 대조했을때 서로 하나도 다름이 없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비록 원본은 없지만 원본의 내용은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렇다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이다. 비록 성경의 원본은 없지만 성경의 신/구약의 사본들이 수천개씩 여러 박물관과 최고의 성경권위자들의 손에 보존되어져 있다. 우리가 성경의 원본이 있었으며 원본에 어떤 오류도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군데서 발견된 사본들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원본과 사본의 차이는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때에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였다. 그것이 원본이 되는 것이다. 그 후에 그 원본을 더 잘 보관하기 위해 사본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본을 만드는 일은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았으며 기록하는 자들이 잘못 기록할 경우에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으며 심지어는 처형에 이르기까지하는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사본이 기록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시간을 걸쳐 사본에서 또 다른 사본을 만들어 내는 일들이 되풀이 되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1,000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둔 여러개의 사본들이 동일하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실질적으로 성경의 사본과 사본 사이의 정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그러면 성경의 번역본은 무엇인가? 모든 원어로 되어있지 않은 성경을 번역본이라고 한다. 한글번역 성경, 영어번역 성경 등등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된 성경을 번역본이라고 한다. 언어의 특성상 번역본은 완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번역본에 의존하지 않고 원어성경을 연구하고 사용한다. 그렇다고 번역본인 한국어 성경, 또는 영어 성경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잘 번역된 번역본은 하나님과 그의 성품, 성격, 마음, 생각, 계획, 사역에 대해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번역본을 사용하여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이 말은 성경의 원본이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하심이 조금도 잘못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옛 약속 (언약)과 새로운 약속 (언약)을 의미한다. 옛 언약이라고 지나갔고 쓸모없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새 언약이라고 옛 언약 대신에 주어진 언약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전의 언약과 예수님 후의 언약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담겨있는 계시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즉 구 언약과 신 언약을 계시하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함과 영원함을 말해주고 있다. (창세기 17:7)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첫째, 구약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하시고 역사하심과 장차오실 성자 하나님을 조명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면, 신약성경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시고 역사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있다.

둘째, 구약성경에서는 신약의 교회 즉 언약 공동체라고 불리운 교회를 방불케하는 이스라엘이란 특별한 언약 관계의 언약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공의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셨다면 신약성경에서는 언약의 공동체되는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셨다.

셋째, 구약성경에는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의 모형이 되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었고 신약에는 성육신 하셔서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구약성경의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을 완성시키시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넷째, 구약성경에서는 동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속죄제와 예배를 드렸으나 신약성경에서는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셨다.

위와 같은 차이들 외에 여러가지의 다른 차이들이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맥과 줄기는 하나이다. 그 이유는 역사와 우주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구약시대에서나 신약시대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이 없이 신약성경을 이해 할 수 없고, 신약성경이 없이 구약성경의 완성을 이룰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을 구약성경의 성취, 또는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 장 성경에 관하여

1-1. 성경의 필요성과 종결성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것들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는데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啓示)하시고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고,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의(惡意)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굳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계시하신 내용을 온전히 기록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1-2. 66 권의 책들이 정경(正經)임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칭 아래 현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성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훬,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성경--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서, 요한 2 서, 요한 3 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즉 하나님의 영감(靈感)으로 주어져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되는 모든 책들이다.

1-3. 외경 (外經, Apocrypha)은 정경(正經)이 아님

보통 외경(外經, apocrypha)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신적(神的) 영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正經, canon)의 한 부분이 아니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다른 인간 저작품들보다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1-4. 성경의 권위의 근거

우리가 성경을 믿고 복종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 때문인데, 그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證言)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의 저자이신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1-5. 성경의 신적 권위의 증거들과 확신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권유되어 성경을 높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의 천적(天的)임, 그 교리의 유효함, 그 문체의 장엄함, 그 모든 부분들의 상호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전체의 목적,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길을 충만히 발견케 함, 및 기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탁월한 점들과, 그것의 전체적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거하는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 마음 속에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사역으로부터 온다.

1-6. 성경의 충족성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 곧 사람의 구원, 신앙 및 생활에 관한 그의 모든 뜻은 성경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논리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으며, 어느 때든지 성령의 새 계시들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전통들에 의해서 아무 것도 첨가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내면적 조명(照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의 행위들과 사회들에 공통적인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항상 지켜져야 할 말씀의 일반적 규칙들에 따라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에 의해 정돈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1-7. 성경의 명료성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똑같이 명백한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의 이곳 저곳에 분명히 제시되고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배운 자들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들도 일반적 수단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1-8. 성경 번역의 필요성

(옛날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母國語)이었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기록 당시 여러 나라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은 직접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며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확실하고, 따라서 종교의 모든 논쟁들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것들[원문 성경]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어들은, 성경들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것들을 읽고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것들이 가는 각 나라의 통속적 언어로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들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들이 그의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고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1-9. 성경 해석의 법칙

성경 해석의 무오(無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며; 그러므로 어떤 성경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 그것은 여럿이 아니고 단 하나임--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은 더 분명히 말하는 다른 곳들에 의해 연구되고 알려져야 한다.

1-10. 최고의 심판자

종교의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며, 회의들의 모든 선언들, 고대 저자들의 의견들, 사람들의 교리들, 및 개인의 정신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의 선포를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최고의 심판자는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우리는 외경과 정경에 대해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외경이 정경이 될 수 없는 이유 네 가지를 들어본다. **첫째**, 외경들은 다른 구약성경의 기록과는 달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외경들을 기록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외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외경들은 예수님이나 신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넷째**, 외경에는 다른 성경말씀과 상충되는 가르침들이 기록되어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성경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진보주의적인 성경관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성경의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그들이 성경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황당한 견해이다.

둘째, 신 정통주의 또는 빠르트주의적인 성경관이 있다. 이 견해는 좀 복잡하다. “성경을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기록이고 그것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역사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사람에게 의미있게 다가 갈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가가지 않을 때는 그저 사람의 말로 남는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 설명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설명이다. 진보주의와 신 정통주의의 견해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셋째, 개혁주의적 또는 정통주의적 성경관이 있다. 소요리 문답의 견해가 바로 개혁주의적 견해이다. 이 견해는 “성경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한다”. 성경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며 오류도 없음을 주장한다. 이것이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춘 기독교의 성경관이다.

CLC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성경관을 주장하고 가르치며 따르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밑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주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로마 교황과 케톨릭의 오류는 심각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에 두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는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었다. 우리도 역시 생명을 거는 이런 외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시편 119 편을 읽고 묵상하라. 그리고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엇이라고 정리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17) 진리는 성경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혹, 성경 밖에서 진리를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결론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성경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